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사회언어학*

이 정 복
(대구대학교)

Abstract

Lee, Jeong-bok. 2002. **Sociolinguistic Analysis on the Sentence-final Moods of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0(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entence concluding manners in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02 in consideration of generation, gender, and area of internet communication. We also considered various usages of sentence concluding in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 placing the focus on social factors of users as well. The analysis of the data confirmed us that the sentence concluding modes were adjusted and altered in various ways in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 'Non-concluding' as the characteristics of sentence finals in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 typically shows ellipses of predicates or sentence endings, concluding with nouns or nominals, concluding with connective endings, abuses and ellipses of sentence marks or characters, change of ending forms, and so on. Such usages appears to arise from the following motivations: enhancing the effective function in writing and reading, taking the initiative in rapid chatting, emphasizing the speaker's intention, or dispense of the avoidable honorifics. We also found out that teens and students in their twenties tend to use 'non-concluding sentences' with higher frequency. These tendencies seem to reflect the internet users' positive usage of the language to deliver their intentions and purpose of their internet communication more clearly and vividly.

Keywords: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 sentence-final moods, sociolinguistics, statistic analysis, change in usages

주 제 어: 인터넷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 사회언어학, 통계적 분석, 종결어미 변용

I. 머리말

이 연구는 인터넷 통신 언어를 대상으로 종결어미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신 언어는 그 자체로서 음운적, 문법적, 어휘적 특징을 가지며 일상어와는 다른 독자적인 '체계'이자 '변이어'인 점에서 본격적인 언어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쓰임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사례 분석 및 통계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피는 이 연구는 우리말의 새로운 변이 영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충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정복 외(2000)에서 구분된 통신 언어 영역인 '운영자 언어', '대화방 언어', '게시판 언어', '전자편지 언어' 가운데서 '대화방 언어'와 '게시판 언어'의 자료를 중심으로 문장종결법을 다룬다. 대화방 언어 자료는 예비 조사를 거쳐 인터넷 대화 사이트에서 2002년 2월 한 달 동안 본격적으로 수집한 것이다. 대화 참여자의 세대, 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게시판 자료는 '정부', '언론', '학술', '상업', '대학', '오락'의 6개 범주에서 유명 사이트 한 두 개씩 모두 8개를 선정하여 역시 같은 기간의 게시글을 수집하였다.¹⁾ 대화방과 게시판에서 문장종결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피고, 나

아가 대화방 언어의 경우 대화 참여자의 세대와 성의 차이에 따라, 게시판 언어의 경우에는 사이트 특성에 따른 문장종결법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 2장에서 분석 자료에서 보이는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특성을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고,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대화방 언어와 게시판 언어의 문장종결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겠다. 5장에서는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 그 의미를 논의하고 전체 글을 마무리한다.

II. 문장종결법과 종결어미의 특성

1. 문장종결법의 전반적 특성

통신 언어의 문장들은 전반적으로 완결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상어의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 등의 필수 성분이 있어야 하고, 서술어는 종결어미에 의해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통신 언어는 서술어가 없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서술어가 있더라도 종결어미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일이 많다.²⁾ 이런 통신 언어의 특성을 ‘비완결성’이란 말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통신 언어는 전반적으로 일상어에 비해 비완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시판보다는 대화방 언어에서 문장의 비완결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론 대화방 안에서도 화자들의 세대나 성, 대화 분위기, 참여자 수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게시판의 경우에도 글의 내용이나 목적,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서술어나 종결어미가 생략된 대화방 문장

No썬주디스	▶	울동네 김지숙 헤어클럽은 있는디^^
v한턱썬v땡	▶	김지숙 헤어 클럽~~~ㅋㅋㅋ
샤샤공주	▶	---
채연	▶	ㅋㅋㅋ
v한턱썬v땡	▶	하하하하
붉은달빛	▶	ㅎㅎㅎ
leehot27	▶	어떻게든 잘알 찾아내서
No썬주디스	▶	집 망했지만!!
붉은달빛	▶	어야!!ㅋㅋ
v한턱썬v땡	▶	내말이
샤샤공주	▶	그 학교 물 좋나여
v한턱썬v땡	▶	홍석이 매니아~~김지숙~~

위의 대화방 자료는 서술어나 종결어미가 생략되는 현상이 흔한 것임을 보여 준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길게 문장을 적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핵심 의미를 전달하는 주요 성분만 채우고 문장을 마치거나 서술어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동사 어간 등의 최

1) 대화방 언어 및 게시판 언어의 자료 수집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3장과 4장의 앞 부분에서 다시 상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2) 이 글은 문장종결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등 다른 성분이 생략된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통신 언어는 일상어에 비해 서술어뿐만 아니라 다른 문장 성분의 생략도 훨씬 많은 것이 특징이다.

소 언어 형식만 사용하는 일이 많다. 무엇보다 대화방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대화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문장의 서술부나 서술어미 등을 생략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로 통신 이용자³⁾들은 글자 입력과 의사 표현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된다.

통신 언어 문장은 종결어미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 변이를 드러낸다.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성분에서도 변형이 일어나지만 종결어미 부분에서 특히 정도가 심하다. 종결어미 변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소리 바꾸기’와 ‘소리 더하기’가 그것이다.

(2) 종결어미가 변형된 문장들

- 가. 가입은 했는데 무료쿠폰 안받아지네여..
- 나. 어제 스타 1.09를 다운받았쑤다..
- 다. 잘 되었으면 메일좀 보내 주세용
- 라. 제발 T.T부탁드립니다아아아...

(2가)에서 종결어미 ‘-네요’가 ‘-네여’로 바뀌었고, (2나)의 ‘쑤다’는 하십시오체의 ‘-습니다’에서 자음과 모음이 바뀌었다. (2다)에서는 ‘-어요’에 자음 ‘ㅇ’이 더해졌고, (2라)에서는 ‘-다’가 3음절로 확대되었다. 화자들은 각 유형에서 다양한 어미 바꾸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소리 바꾸기와 소리 더하기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거나 애교스럽게 표현하고, 때로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에서 보이는 세 번째 특성은 문장의 끝에 다양한 문장 부호나 문자, 기호, 숫자가 동반되는 점이다. 통신 언어의 진형이라 인식될 만큼 이러한 부호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아래 (3가)를 보면 온점 하나를 찍어야 할 부분에 네 개가 나타나 있고 그것도 부족해 기호로 얼굴까지 그렸다. 물음표나 느낌표를 몇 개씩 반복한 문장도 있고, 물결표도 반복되어 쓰였다. 이러한 기호 등의 반복적 사용은 주로 의미 강조, 대화의 현장감 표현을 위한 것이다.

(3) 종결 위치에 부호 등이 비규범적으로 쓰인 문장들

- 가. 나하고 8센치나 차이나네...-_-
- 나. 왜않돼나여?????
- 다. 꼭 답장 부탁 합니다!!!!!!1
- 라. 신국아~~내애기좀 헤라~~
- 마. 디스형은 작업만장~ㅋㅋㅋ
- 바. 글썸는데 답변두 안달아주시구...TT

이러한 세 가지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주요 특성은 나름대로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언어 규범의 면에서는 문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있겠으나 통신 화자들에게는 목적이 뚜렷한 의도적 용법이라 할 만하다.⁴⁾ 다만 이 글에서는 일상어 문장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특성을 기술하였음을 지적한다.

3) 같은 의미로 ‘통신 화자’라는 말을 함께 쓰고자 한다.

4) 통신 언어에서 보이는 다양한 형태 변형의 실태에 대해서는 이정복 외(2000)에서, 그 발생 동기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정복(2002가)에서 다루었다.

2. 종결어미의 변용 유형

통신 언어는 전반적으로 문장이 완결되지 못하는 일이 많은 한편 종결어미의 형태가 바뀌고 다양한 기호가 보태지는 사실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여기서는 대화방과 게시판 언어를 중심으로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특성을 ‘종결어미의 변용’이라는 이름을 붙여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곧 문장의 비완결성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며, 문장 종결어미가 통신 언어에서 어떻게 바뀌어 쓰이고 있는지, 문장의 끝 부분에서 어떤 문장 부호나 기호가 어느 정도 덧붙는지를 기술하겠다.⁵⁾

1) 서술어나 종결어미 줄이기

서술어가 없거나 서술어가 있더라도 종결어미가 없는 통신 언어 문장을 통신 화자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문장의 핵심 의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생략함으로써 글자 입력에서 타수를 줄이거나 정보 전달을 빠르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문장에서 서술어나 종결어미가 없는 경우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것을 들면 세 가지 정도가 있다. 명사나 명사형으로 끝나는 경우, 용언의 연결형으로 끝나는 경우, 조사나 부사로 끝나는 경우가 그것이다.⁶⁾ 아래에서 각 유형에 대해 게시판과 대화방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특징을 정리한다.

(1) 명사나 명사형 종결

서술어가 없는 문장 가운데서 많은 경우는 명사 자체만으로 문장이 끝난다. 특히 대화방에서 이러한 예가 많다. 서술어가 없더라도 명사에 조사는 붙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생략하여 입력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음 대화 사례는 명사의 교환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보기이다.

(4) 명사나 명사형으로 끝난 대화방 문장

그렇게살꺼다	▶	토요일날가나
폴라리스	▶	---^
혁민쌤살앙훼	▶	ㅋㅋ
이곡동양사장	▶	아니
이곡동양사장	▶	일요일
v은혜받아써v	▶	혁S..
그렇게살꺼다	▶	일요일..... 몇시?
이곡동양사장	▶	10시반
v은혜받아써v	▶	10시

5)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세부적 특성에 대한 사례 분석은 이정복(2001나)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고 체계를 고쳐 기술한다.

6) 성명희(2001:51-59)는 통신 언어에서 종결어미로 끝나지 않은 문장을 ‘중단 생략문’이라 부르고, 그것은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제가 연속되지 않는다면 또는 다른 화자의 발화로 얘기가 중단 되는 경우”와 “화자의 의지로 일반적인 종결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을 ‘생략된 성분을 복구할 수 있어 중단 생략문이라 규정’하면서 그 세부 유형에 ‘명사, 비종결어미, 조사, 부사’로 끝나는 것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 그렇게살까다 ▶ 어참
- v은혜반아씨v ▶ 30분
- 그렇게살까다 ▶ 아침?

12개의 대화문⁷⁾ 가운데서 종결어미가 갖추어진 것은 하나밖에 없다. “일요일”, “일요일..... 몇시”, “10시반”, “아침?” 등이 모두 명사나 명사구로 마무리 된 문장들이다. “일요일”은 ‘일요일에 간다’에서, “아침?”은 ‘아침에 가나?’에서 문장의 핵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만 남기고 줄였다. 이렇게 명사로 문장을 끝냄으로써 조사와 서술어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글자 입력을 편하게, 대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통신 언어에서는 서술어를 명사형으로 끝맺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면 ‘번개해 봤어요?’나 ‘번개해 봤습니까?’로 적는 대신 명사형 어미 ‘-음’을 사용하여 ‘번개해 봤음?’으로 짧게 줄여 쓰는 방식이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문장 길이를 줄임으로써 글자 입력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청자 경어법 사용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경우임이 앞선 연구에서 지적되었다(이정복 2001나 참조).⁸⁾ 아래 (5)에서 많은 명사형 종결문을 볼 수 있다.

(5) 명사나 명사형으로 끝난 게시판 문장

제목 : 디아아디로리니지아디**삼**
 님들아
 디아 아사2)썩 렘은81아마 79 소서 70바바
 캐릭**있음**.....
 아템은아마 소서는 다 **좋음**.....
 리니지 서버 상관**없음**.....
 렘은40~~이상구합니당~~

인터넷 게시판에서 수집한 위 사례에는 제목을 포함하는 5문장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종결어미가 갖추어진 것은 마지막 한 문장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삼’, ‘있음’, ‘ 좋음’, ‘상관없음’의 명사형으로 문장이 끝났다. 이 화자가 끝 문장에서 하십시오체를 쓴 것을 생각하면 나머지 4문장을 명사형으로 끝맺음으로써 종결어미 ‘-니다’ 4개를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명사나 명사형으로 문장을 끝맺는 일은 결국 입력할 글자를 줄임으로써 빠르고 편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경제적 동기의 반영이라 하겠다.⁹⁾

(2) 연결형 종결

통신 언어에서 문장이 제대로 완결되지 못하는 유형 중의 대표적인 다른 하나가 용언의 연결형으로 문장을 이어가는 것이다. 다음 (6)은 대화방에서 연결형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

7) ‘대화문’이란 통신 대화방에서 문장 성분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한 화자가 1회 전송한 부분을 하나의 문장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다만, 1회 전송 분이 복수의 분명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각각이 한 대화문이 된다.
 8) 성명희(2001: 57)는 명사형 종결 문장이 “다소 형식적인 느낌을 주고, 토막 광고 같아 친근감을 덜 주는 데도 이를 쓰는 것은 의도적으로 간결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언어를 쓰려는 경향”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중립적인 태도’란 무엇에 대한 태도인지 분명하지 않다.
 9) 명사나 명사형으로 종결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다는 견해도 있으나 특정 맥락에서만 가능한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준다.

(6) 연결형으로 끝난 대화방 문장

- 칭구합시다 ▶ 그사람이 전실력이 **좋은 안좋은**
- 비양심미국 ▶ 맨날 강병규 **놀리고**
- 칭구합시다 ▶ 그래서
- ㅡ_ㅡㅁ미국 ▶ 태권도는 안사라진다
- 칭구합시다 ▶ 요번에 싸이더스 게시판에 **가서**
- 비양심미국 ▶ 김동성 오빠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 비양심미국 ▶ 제발
- 칭구합시다 ▶ 애들 지금 또 난리라던데
- 비양심미국 ▶ 싸이더스가
- 비양심미국 ▶ 김동성으로 **인해서**

10개의 대화문으로 이루어진 위 대화 사례에서 4개의 문장이 연결형으로 끝났다. 대화 참여자 ‘칭구합시다’가 세 번째 말한 부분은 이후 세 번째 문장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문장들은 이어지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연결어미로 문장을 끝맺는 일은 앞의 명사나 명사형 종결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연결어미 다음의 서술어나 후행절을 생략함으로써 글자 입력을 줄이고, 빠르게 이어지는 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예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형으로 끝나 버리고 관련 부분이 뒤따르지 않을 때는 명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연결형 문장이 많이 나오는 것은 특히 대화방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대화의 흐름에서 뒤쳐지지 않고,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러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가 어떤 말을 할지,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불안감과 조급증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문장을 완전히 적을 여유가 없게 되고, 한 절이나 심하면 한 어절만 적어도 다른 참여자들에게 전송해 버린다. 연결형의 문장은 바로 이러한 대화방의 특성과 경제적 동기가 함께 작용된 결과이다.

(7) 연결형으로 끝난 게시판 문장

- 그것이 알고싶다..상도ost 언제 나오나???
- 정말 궁금해요...
- 처음에는 1월중순에...
- 나온대서 목빠지라고 **기다렸건만..**
- 그리고 1월말에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 근데 1월말 벌써 **지났는데..**
- 어쨌든...완성도 높은 ost 기대할께요.

인터넷 게시판의 글에서도 연결형으로 마무리된 문장들이 많이 나타난다. 위의 글에서 진하게 표시한 세 부분은 모두 문장의 끝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모두 연결형으로 되어 있다. “기다렸건만” 다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다음에는 ‘하였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지났는데” 다음에는 ‘왜 나오지 않는지요?’ 정도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문장 모두에

서 ‘나오지 않-’이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둘째 문장의 “상도ost 언제 나오나???”를 포함한 문맥에서 유추된다. 이 역시 복구가 가능한 부분의 반복을 피하려는 경제성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게시판의 활용 목적이 드라마와 관련된 정보나 의견 교환으로 비교적 가벼운 종류인 점에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쓴 결과라 판단된다.

(3) 조사나 부사로 종결

서술어가 생략되거나 종결어미가 생략되는 경우 구체적인 문장 종결 방식 가운데서 세 번째는 조사나 부사로 문장이 끝나는 경우이다. 조사로 끝나는 경우는 대체로 뒤에 부사나 서술어가 모두 생략된 경우이고, 부사로 끝난 경우에는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이다. 대화방 자료에서 예를 들면 (8)과 같다.

(8) 조사나 부사로 끝난 대화방 문장

- 파랑폴잎 ▶ 내 친구는;
- 파랑폴잎 ▶ 수원군이 제일 늑어보였대요
- 파랑폴잎 ▶ 처음에 봤을때;
- 공포의두얼굴 ▶ --;;
- 파랑폴잎 ▶ 쓰읍;
- 공포의두얼굴 ▶ 왜 다들.....
- 파랑폴잎 ▶ 근데--
- 강씨집안새댁 ▶ 나두..
- 강씨집안새댁 ▶ 수원이가 줌..
- 파랑폴잎 ▶ 저는 수원군 팬이었답니다
- 강씨집안새댁 ▶ 늑어 보였어
- 파랑폴잎 ▶ 로드 파이터 할때--

“내 친구는;”, “나두..”의 경우 조사로 끝난 문장이고, “근데--”, “수원이가 줌..”은 부사로 끝난 것이다. ‘내 친구는’은 아래에서 나머지 부분이 이어졌고, ‘근데’는 ‘저는 수원군 팬이었답니다’로 이어졌다. 이처럼 조사나 부사로 끝난 경우 뒤에 오는 대화문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예들도 많이 나타난다. 이런 대화문에서는 문맥으로 나머지 부분을 복구해야 하는데 빠른 대화의 흐름상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의 연결형에 대한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이러한 문장의 등장은 빠르게 진행되는 대화의 흐름에서 뒤쳐지지 않으며, 대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문장의 일부씩 나누어 발화한 결과이다.

(9) 조사나 부사로 끝난 게시판 문장

- 제목: 포가튼사가는 언제쯤...
- 포가튼사가2온라인은 언제쯤 되나요...
- 정액을 못해서 e게임즈 할려구 하는데 없내용..
- 빨리 할수 있기를....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에도 조사나 부사로 끝난 예들이 많이 있다. 위에서 첫 문장은 게시글의 제목으로서 ‘언제쯤’ 다음의 서술어가 생략된 채 끝났다. “빨리 할수 있기를...”은 목적어 다음에 ‘바랍니다’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예문 모두 언어 경제성의 관점에서 서술어가 생략되어 조사나 부사로 문장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2) 종결어미 형태 바꾸기

통신 언어 종결어미는 그 형태가 다양한 변이를 겪는다. 종결어미의 변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2.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리 바꾸기’와 ‘소리 더하기’가 있다. 소리 바꾸기에는 다시 ‘자음 바꾸기’와 ‘모음 바꾸기’가 있고, 소리 더하기에는 ‘음소 더하기’와 ‘음절 더하기’가 있다. 종결어미 ‘-어요’를 ‘-어여’로, ‘-지’를 ‘-디’로 변형시키는 것이 소리 바꾸기에 해당하고, 종결어미 ‘-다’를 ‘-당’ 또는 ‘-닷’으로 적는 방식이 소리 더하기에 해당한다.

(10) 종결어미 형태가 바뀐 대화방 문장

- lo퓨이 ▶ 하건가느라..아주..빠빠지겠넹..
- 눈차칸이들만 ▶ 나도 친구제외한닷...;
- 내린 ▶ --
- 눈차칸이들만 ▶ 말안듣기만해바.ㅋㅋ
- 다털바버 ▶ 님들아^^
- 내린 ▶ 해봐
- 눈차칸이들만 ▶ 시러
- 느그능바보하 ▶ 머라능건지...
- 다털바버 ▶ 우리 친구 추가 하거 가끔씩
- 내린 ▶ 난 아무 상관없어
- 다털바버 ▶ 채팅이나 같이 해여^^

대화방 문장 사례인 (10)에서 변형된 종결어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해바’, ‘해봐’, ‘해여’는 모두 모음이 바뀐 것인데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적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적힌 경우도 있다. ‘빠지겠넹’, ‘제외한닷’에서는 종결어미 다음에 ‘ㅇ’과 ‘ㅅ’이 각각 더해졌다. 이러한 변형은 아래 게시판 문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무대미술이엌.. ㅎㅎ”에서는 ‘-요’가 ‘-여’로 바뀌면서 동시에 자음 ‘ㄹ’이 더해져서 변형 정도가 더욱 심하다.

(11) 종결어미 형태가 바뀐 게시판 문장

- 등록금 질문이여~
- 요번에 등록금 얼마 나왔나여??????
- 예술대 학우분 갈켜주세여~~^^
- 과마다 다르겠져????
- 무대미술이엌.. ㅎㅎ

이러한 종결어미의 변형은 통신 언어 전반에서 보이는 일반적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형

태 변형은 전체적으로 언어 경제성에 오히려 불리한 것인 점에서 앞의 서술어나 종결어미 줄이기와 다르다. 이것은 발음을 바꾸어 상황의 격식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재미를 더하려는 ‘표현적 동기’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3) 문장 부호 등의 비규범적 사용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세 번째 주요 특성인 문장 부호 등의 비규범적 사용도 통신 화자들에게 매우 널리 퍼진 용법이다. 통신 언어에서는 종결어미 없이 줄임표나 기타 각종 그림 글자(^^;;, π.π 등)로 문장이 끝나는 경우가 있으며, 종결어미가 있을 때에도 온점이나 물음표, 느낌표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문장 부호를 몇 개씩 겹쳐서 적거나 다양한 기호를 덧붙이는 일이 많다. 거꾸로 종결어미 다음에 아무런 문장 부호 없이 끝낸 사례도 많다. 이러한 문장 부호나 기호 등의 사용은 문장의 정확한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부작용이 있는 한편 의미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재미를 더하며, 비언어적 의미의 전달에 유리한 면이 있다.

(12) 문장 부호 등이 비규범적으로 쓰인 대화방 문장

생크림조아 ▶ 그니깐 1살만 더 많은 띠동갑이지요 ㅋㅋ

skhong0416 ▶ 그래요!!~~~~

생크림조아 ▶ 앤 20이라니깐

나에게오는길 ▶ 자세히 설명드리지마..ㅋㅋ

skhong0416 ▶ 나에게오는길님!!!!

생크림조아 ▶ ㅋㅋ

나에게오는길 ▶ 네..--

skhong0416 ▶ 만나면...아빠하고 불러요????

skhong0416 ▶ ㅋㅋㅋㅋㅋㅋ

위 대화 사례에서 물음표와 느낌표가 4개씩 중복되어 있는가 하면 온점의 경우에도 2개가 찍혔다.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ㅋㅋ’도 많이 쓰였다. 첫째 대화문에서는 온점이 없고, 둘째 문장에서는 물음표 다음에 긴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물결표를 넣기도 하였다. “만나면...”의 세 점은 온점이나 줄임표가 아닌 습관적인 것인데, 굳이 기능을 찾자면 말을 잠시 쉬는 쉼표의 역할로 쓰였다고 해석된다. 위의 대화문 가운데서 문장 부호가 정상적으로 쓰인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일상어와 큰 차이를 보인다.

(13) 문장 부호 등이 비규범적으로 쓰인 게시판 문장

스타크래프트 1.09에 관한 문의.. 갈켜주세요

어제 스타 1.09를 다운받았쥬다..

근데, 1.08에 비해 달라진점이 무엇인지 몰겠어요..

맵해만 방제한건지.. 유닛의 기능이 강화되거나 건물의 기능변화는 없는지등등..

너무 궁금합니다..

누구 아시는분 대답좀 해주세요~~~~~

멜로 보내주시면 더 고맙구요.... !!!!

위 (13)의 게시판의 문장 사례에서도 다양한 기호들이 사용되었다. 두 점이 종결어미 다음과 줄임표가 쓰여야 할 자리에 구분 없이 섞여 있다. “멜로 보내주시면 더 고맙구요.... !!!!”에서는 종결어미 뒤에 네 점이 찍히고 이어 네 개의 느낌표가 쓰였다. 전체적으로 문장 부호의 사용이 체계가 없고 일관성도 유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장 부호 등의 사용은 어느 정도 표현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정확한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되며, 문장의 완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III. 대화 참여자 특성과 종결어미 변용

1. 자료 수집 및 분석

이 장에서는 대화방의 언어 자료를 화자의 세대와 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문장종결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에 의한 대화 참여자 구분은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직업(또는 학력)을 동시에 기준으로 삼아 ‘초중학생’(16살 이하), ‘고등학생’(17~19살), ‘대학생’(20~24살), ‘일반인’(25살 이상)의 네 집단으로 하였다. ‘성’에 의한 구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되, 세대의 특성이 작용하지 않도록 대학생 집단으로 나이 단계를 한정하였다. 나이를 기준으로 10대, 20대, 30대 등으로 나누지 않고 직업을 고려한 것은 대화 참여자들의 정보 가운데서 나이보다는 직업이 보다 신뢰도가 높고, 작은 나이 차이에 따라서도 직업의 차이에 의한 통신 언어 사용의 정도 차이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¹⁰⁾ 또 현실적으로 대화 참여자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인 점 때문에 30대, 40대 이상의 자료는 모으기가 힘든 점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

각 참여자 집단별 종결어미 변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모듬(corpus)을 구성하였다. 참여자 집단별 자료 모듬은 한글 15,000자 정도가 되도록 하였다. 자료 모듬에 포함된 문장 수는 평균 889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문장종결어미가 나타날 수 있는 것만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화에서 화자들이 사용한 대화문은 이보다 많다.¹¹⁾ 이 자료 모듬에 포함된 대화방 언어는 2002년 2월 한 달 동안 인터넷 대화방 사이트인 ‘세이클럽’(www.sayclub.com)에서 수집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의 분량은 A4 용지로 약 3500매에 이른다.

<표 1> 대화방 언어 분석을 위한 자료 모듬 구성

10) 대화 참여자 정보에서 나이와 직업, 성별과 직업 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거짓 정보일 위험성이 높아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11) 대화문 가운데서 종결어미가 쓰이기 어려운 부름말, 대답말, 감탄말 등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문장에 넣지 않았다. 또 문장 부호, 기호 등으로만 된 것도 모두 뺐다.

참여자 집단 범주	참여자 집단	글자 수	문장 수
세대별	초중학생	15,083	886
	고등학생	15,233	893
	대학생	15,196	848
	일반인	15,036	932
	평균	15,137	889
성별	남성 (대학생)	15,154	882
	여성 (대학생)	15,218	896
	평균	15,186	889

위와 같이 구성한 자료 모듬은 다음과 같은 언어 변향을 중심으로 문장종결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가. 서술어나 종결어미의 유무: 있음/없음
- 나. 서술어 등 없음의 경우 종결 방식: 명사(형)/연결형/조사·부사
- 다. 종결어미의 변형: 바꿈/바꾸지 않음
- 라. 문장 부호 등의 사용 방식: 규범적 사용/비규범적 사용

위의 분석 변향 가운데서 종결어미의 유무와 서술어 없음의 경우 종결 방식을 파악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연결형으로 끝났을 때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문맥을 고려하여 종결 여부를 파악하였다. 문장 부호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줄임표의 경우 6개 또는 3개의 점이 이어졌을 때 정상적인 줄임표로 인정하고, 그 때에도 줄임표가 온전한 종결어미 뒤에 있을 때는 온점 대응으로 보아 비규범적 용법에 넣었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을 복수로 붙인 것,¹²⁾ 기호 등을 사용한 그림 글자 표현, 글자를 이용한 의성의태어 표현 등도 모두 비규범적 용법으로 다루었음을 밝힌다.

2. 분석 결과

먼저, 대화방 언어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종결법의 특성 가운데서 서술어나 종결어미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서술어나 종결어미의 유무: 대화방 언어

12) 다만 온점 등을 찍지 않고 문장을 마무리한 경우는 소극적인 언어 사용의 예로 보아 다른 '적극적인 비규범적 용법'에 넣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까지 포함하면 비규범적 용법의 실제 비율은 여러 표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훨씬 높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 집단 범주	참여자 집단	전체 문장 수	서술어나 종결어미 줄이기	
			횟수	비율(%)
세대별	초중학생	886	386	43.6
	고등학생	893	385	43.1
	대학생	848	332	39.2
	일반인	932	380	40.8
	평균	889	370	41.6
성별	남성 (대학생)	882	353	40.0
	여성 (대학생)	896	336	37.5
	평균	889	344	38.7

세대별 자료 모듬에서는 평균 41.6%의 문장이 서술어나 종결어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약 43%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학생과 일반인은 40% 안팎의 비율을 보였다. 차이가 크지 않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서술어가 없거나 종결어미를 생략한 문장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서술어나 종결어미를 생략하였다.

<표 3> 서술어 등 없음의 경우 종결 방식: 대화방 언어

참여자 집단 범주	참여자 집단	서술어 등이 없는 문장 수	명사(형):연결형:조사·부사 종결	
			횟수	비율(%)
세대별	초중학생	386	180:105:101	47:27:26
	고등학생	385	167:135:83	43:35:22
	대학생	332	127:110:95	38:33:29
	일반인	380	174:123:83	46:32:22
	평균	370	162:118:90	44:32:24
성별	남성 (대학생)	353	134:138:81	38:39:23
	여성 (대학생)	336	147:96:93	44:28:28
	평균	344	140:117:87	41:34:25

서술어가 없거나 서술어가 있더라도 종결어미가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 문장이 어떤 형식으로 끝나게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세대별 분석에서는 명사나 명사형으로 문장이 마무리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평균 44%의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연결형이 32%, 조사나 부사로 끝난 경우가 24%였다. 세대 집단에 따라 세 방식의 상대적 비율 크기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순위는 모두 같게 나타났다. 성별 분석 결과, 남성들이 연결형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명사(형) 종결형이 많았다.

종결어미가 다양한 방식으로 형태 변이를 경험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종결어미의 변형: 대화방 언어

참여자 집단 범주	참여자 집단	전체 문장 수	종결어미 바꾸기	
			횟수	비율(%)
세대별	초중학생	886	236	26.6
	고등학생	893	219	24.5
	대학생	848	225	26.5
	일반인	932	159	17.1
	평균	889	209	23.5
성별	남성 (대학생)	882	244	27.7
	여성 (대학생)	896	200	22.3
	평균	889	222	25.0

위의 표를 보면, 종결어미가 변형된 문장은 세대별 자료 모두 평균 23.5%에 이른다. 10문장 가운데서 약 4문장이 종결어미가 변형되어 쓰인다는 의미이다. 초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일반 직장인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최고 10% 정도 낮았다. 성별 자료 모두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5% 정도 더 변형된 형식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문장 부호 등의 사용 방식: 대화방 언어

참여자 집단 범주	참여자 집단	전체 문장 수	비규범적 부호 사용	
			횟수	비율(%)
세대별	초중학생	886	344	38.8
	고등학생	893	315	35.3
	대학생	848	293	34.6
	일반인	932	205	22.0
	평균	889	289	32.5
성별	남성 (대학생)	882	304	34.5
	여성 (대학생)	896	332	37.1
	평균	889	318	35.8

대화방 언어에서 문장 부호, 기호, 각종 문자 등을 비규범적으로 사용한 결과를 보면, 세대별로는 최고 38.8%에서 최하 22%로 평균 32.5%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일반인과 다른 세 학생 집단에서 10% 이상 차이가 있었고, 학생 집단에서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나이에 반 비례하여 문장 부호 등의 비규범적 사용이 많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규범적 용법이 조금 더 많았다.

IV. 게시판 특성과 종결어미 변용

1. 자료 수집 및 분석

게시판 언어의 문장종결법을 살피기 위하여 <표 6>과 같이 모두 8개의 대표적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게시판 유형을 대체로 ‘정부, 언론, 학술, 상업, 대학, 오락’으로 나누고 각각에서 한 두 개의 사이트를 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언론과 오락 분야에서 각각 2개씩을 선정하였는데 이것은 비슷한 유형의 사이트라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특성과 게시판의 목적, 사이트의 세부적 특성에 따라 언어 사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자료

를 수집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¹³⁾

<표 6> 자료 수집 대상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 유형	사이트 이름	사이트 주소	게시판 위치와 이름
정부	문화관광부	www.mct.go.kr	열린마당/나도한마디
언론	한겨레신문	www.hani.co.kr	토론마당
	문화방송	www.imbc.com	게시판/시청자의견/상도
학술	교수채용정보	dblab.changwon.ac.kr	브레인카페
상업	예스24	www.yes24.com	회원코너/자유게시판
대학	상명대	www.sangmyung.ac.kr	상명모임터/말말말/낙서장
오락	오로바둑	www.orozone.com	게시판
	이게임즈	www.egames.co.kr	게시판

각 게시판 언어의 문장종결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모듬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앞의 대화방 언어와 마찬가지로 15,000자를 기준으로 하였고, 각 자료 모듬에 포함된 문장 수, 글 수, 글 당 문장 수 등을 함께 밝혀 두었다.

<표 7> 게시판 언어 분석을 위한 자료 모듬 구성

사이트 범주	사이트 이름	글자 수	문장 수	글 수	글 당 문장 수
정부	문화관광부	15,429	310	22	14.1
언론	한겨레신문	15,346	301	20	15.1
	문화방송	15,157	387	62	6.2
학술	교수채용정보	15,099	339	29	11.7
상업	예스24	15,298	445	62	7.2
대학	상명대	14,856	483	81	6.0
오락	오로바둑	15,255	476	59	8.1
	이게임즈	14,759	503	99	5.1
평균		15,149	405	54	9.2

<표 7>에 의하면, 각 자료는 평균 405개의 문장과 54개의 글로 이루어져서 한 글 당 9개의 문장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8개의 인터넷 게시판 가운데서 한 글 당 문장 수가 가장 적은 것은 오락 사이트인 ‘이게임즈’로 평균 5문장이 하나의 게시글을 이룬다. 이와 달리 가장 많은 것은 언론 사이트인 ‘한겨레신문’으로 약 15문장이 한 글을 이룬다. 글을 이루는 문장이 많다는 것은 필자들이 그만큼 진지하게, 열심히 글을 쓴 결과로 생각된다. 종결어미 쓰임의 분석을 위해 글 당 문장 수에 비례하여 글의 진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각 사이트 안에서 게시판 이용자의 성, 세대 등을 구별하여 자료를 분석하지는 않는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정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특성은 다양할 수 있고, 앞서 대화방 자료의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러한 특성에 따른 언어 사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이용자 특성이 각 사이트의 특

13) 학술 사이트인 ‘교수채용정보’는 최근 ‘하이브레인넷’으로 이름이 바뀌고 주소도 ‘www. hibrain.net’으로 바뀌었다.

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사이트 범주와 이용자들의 세대별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학’의 경우 주로 20대 초반이 대부분이고, ‘학술’의 경우 30대 이상인 대학 강사나 교수가 대부분이며, ‘오락’의 경우 10대나 20대 이용자들이 특히 많을 것이다. ‘언론’의 경우에도 방송 게시판은 20대 이하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신문 게시판은 30대 이상이 많을 것이다. 각 게시판의 언어가 용법 차이를 보인다면 게시판의 목적이나 글의 주제, 필자의 태도 등과 함께 이용자의 세대, 성, 학력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러한 이용자 특성은 사이트의 전체 특성을 이루는 한 요소라 할 것이다.

2. 분석 결과

게시판 언어 자료도 대화방 언어와 같은 변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다음 <표 8>은 서술어나 종결어미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표 8> 서술어나 종결어미의 유무: 게시판 언어

사이트 범주	사이트 이름	전체 문장 수	서술어나 종결어미 줄이기	
			횟수	비율(%)
정부	문화관광부	310	27	8.7
언론	한겨레신문	301	33	11.0
	문화방송	387	78	20.2
학술	교수채용정보	339	52	15.3
상업	에스24	445	68	15.3
대학	상명대	483	98	20.3
오락	오로바둑	476	73	15.3
	이게임즈	503	105	20.9
평균		405	67	16.5

앞의 대화방 언어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체 게시판 자료 모둠에서 평균 16.5%의 문장이 서술어나 종결어미 없이 나타났다. 사이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정부 기관인 문화관광부의 게시판 언어가 가장 낮은 비율(8.7%)을 보였다. 반대로 방송, 대학, 오락(이게임즈) 사이트의 게시판 언어가 20% 정도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같은 언론 사이트라도 신문이 방송보다, 오락 사이트 가운데서는 바둑 사이트가 컴퓨터 게임 사이트보다 서술어나 종결어미를 갖춘 문장이 많이 사용되었다.

<표 9> 서술어 등 없음의 경우 종결 방식: 게시판 언어

사이트 범주	사이트 이름	서술어 등이 없는 문장 수	명사(형):연결형:조사·부사 종결	
			횟수	비율(%)
정부	문화관광부	27	10:10: 7	37:37:26
언론	문화방송	78	28:44: 6	36:56: 8
	한겨레신문	33	22: 8: 3	67:24: 9
학술	교수채용정보	52	12:31: 9	23:60:17
상업	에스24	68	11:46:11	16:68:16
대학	상명대	98	25:62:11	26:63:11
오락	오로바둑	73	24:37:12	33:51:16
	이게임즈	105	32:53:20	30:51:19
평균		67	21:36:10	31:54:15

게시판 언어에서 서술어 등이 없을 때 문장의 종결 방식은 연결형으로 끝난 경우가 평균 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명사나 명사형이었고(31%), 조사나 부사로 끝난 경우는 15%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앞의 대화방 언어에서는 명사나 명사형 종결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던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표 10> 종결어미의 변형: 게시판 언어

사이트 범주	사이트 이름	전체 문장 수	종결어미 바꾸기	
			횟수	비율(%)
정부	문화관광부	310	1	0.3
언론	한겨레신문	301	3	1.0
	문화방송	387	54	14.0
학술	교수채용정보	339	6	1.8
상업	에스24	445	54	12.1
대학	상명대	483	125	25.9
오락	오로바둑	476	159	33.4
	이게임즈	503	159	31.6
평균		405	70	17.3

게시판 언어에서 종결어미가 어느 정도 변형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평균 17.3%로서 대화방 언어의 그것에 비해 6% 정도 낮다. 그러나 사이트에 따라 편차가 크다. 문화관광부는 0.3%, 한겨레신문 1%, 교수채용정보 1.8%의 극히 낮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락 범주의 두 사이트는 각각 33.4%와 31.6%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터넷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사이트에 따라서 종결어미의 변형 정도가 3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난다. 조사 대상 사이트를 종결어미 변형의 정도 면에서 나누어 보면 ‘문화관광부, 한겨레신문, 교수채용정보’가 변형이 거의 없는 사이트로, ‘에스24, 문화방송’이 어느 정도 변형이 있는 사이트로, 나머지 ‘상명대, 오로바둑, 이게임즈’가 종결어미의 변형이 아주 심한 사이트라 하겠다.

<표 11> 문장 부호 등의 사용 방식: 게시판 언어

사이트 범주	사이트 이름	전체 문장 수	비규범적 부호 사용	
			횟수	비율(%)
정부	문화관광부	310	62	20.0
언론	한겨레신문	301	43	14.3
	문화방송	387	196	50.6
학술	교수채용정보	339	45	13.3
상업	에스24	445	148	33.3
대학	상명대	483	275	56.9
오락	오로바둑	476	137	28.8
	이게임즈	503	217	43.1
평균		405	140	34.6

게시판 언어의 문장 종결 위치에서 문장 부호, 기호, 문자 등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화방 언어와 거의 비슷한 사용률을 나타내었다. 문장 부호 등의 비규범적 사용은 평균 34.6%인데, 대화방 자료의 경우 집단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게시판에서는 최하 13.3%에서 최고 56.9%로 40%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교수채용정보, 한겨레신문, 문화관광부’ 사이트가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게임즈, 문화방송, 상명대’ 사이트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이트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장 부호 등의 비규범적 사용이 게시판 언어에서도 높은 비율로,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 준다.

V. 자료 해석 및 논의

지금까지 인터넷 대화방과 게시판 언어를 대상으로 문장종결법의 특성을 사례 중심으로 지적하고, 이어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분석·기술하였다. 그 결과, 통신 언어는 전반적으로 영역에 관계없이 문장의 완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술어나 종결어미를 생략함으로써 문장이 제대로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사나 명사형 종결, 연결형 종결, 조사나 부사로 종결 방식이 있었다. 이와 함께 통신 언어에서는 종결어미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쓰였고, 문장 부호나 각종 기호, 문자, 숫자 등이 종결어미 뒤나 종결어미가 쓰일 자리에 나타나는 일이 많았다.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성은 이용자들의 세대나 성, 텍스트의 주제나 내용, 화자의 태도와 목적, 통신 언어 영역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4장과 5장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사회언어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결과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대화방 언어에서 세대별 분석 자료의 42% 정도가 서술어 또는 종결어미가 없는 문장이었으며, 그런 경우 명사나 명사형으로 끝난 문장이 가장 많은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종결어미가 변형된 경우는 24%, 문장 부호 등의 비규범적 사용은 33% 정도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대학생 이하의 학생층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비율로 종결어미 바꾸기, 비규범적 부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서술어나 종결어미 줄이기에서는 고등학생 이하와 대학생 이상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서술어와 종결어미 줄이기, 종결어미 변형을, 여성은 문장 부호 등의 비규범적 사용을 좀 더 많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에서 서술어나 종결어미 줄이기, 종결어미 형태 바꾸기, 비규범적 문장 부호 사용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이 일상화되

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세대별로 대학생까지는 종결어미 변형과 비규범적 문장 부호 등의 사용에서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비해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비율이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 학교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언어 사용을 규범에 맞추려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되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나이 많은 일부 화자들이 전형적인 통신 언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성별 분석에서 남성은 종결어미의 변형이, 여성은 문장 부호 등의 비규범적 사용이 많게 나타난 것은 남성이 일상어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한 반면 여성은 좀 더 표현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여성이 사용한 문장에서 종결어미 다음에 “근데 한복은 너무 비싸요 ㅠ_ㅠ”와 같이 그림 글자로 감정을 드러낸 예들이 많이 보였다.

게시판 언어 자료에서는 대화방 언어보다 전형적 통신 언어의 사용이 낮았으나 대화방에서 시작된 용법들이 게시판 언어에도 크게 확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서술어나 종결어미가 생략된 경우는 평균 17%로 나타났는데, 사이트에 따른 차이가 최고 12% 있었다. 그 경우 앞의 대화방 자료와는 달리 연결형으로 끝난 문장이 54%로 가장 많았다. 종결어미의 변형도 평균 17% 정도로 나타났는데 사이트에 따른 차이가 30% 이상으로 컸다. 문장 부호 등의 비규범적 사용은 평균 35%였는데, 이 경우도 사이트별 차이가 최고 40% 이상이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문화관광부, 한겨레신문, 교수채용정보’ 사이트에서는 통신 언어 사용이 아주 낮은 반면 ‘상명대, 오로바둑, 이게임즈’ 사이트는 아주 높았다.

통신 게시판의 자료에서 드러난 문장종결법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해석을 해보면, 먼저 대화방 자료와 달리 평균적으로 통신 언어 사용이 낮은 점은 대화방보다는 게시판의 글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쓴 것이며, 글의 목적이 분명하고 비교적 뚜렷한 주제로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게시판의 글이 더 진지하게 작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문장 부호 등의 사용에서는 두 자료의 차이가 2%로 적었으나 종결어미의 변형은 7%로 크게 나타난 것은 게시판 필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의미 파악에 상당한 장애가 되는 어미 변형을 자제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대화방 언어는 명사(형)로, 게시판 언어는 연결형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은 것은 대화방이 핵심 명사 중심으로 빠르게 대화가 전개되는 점, 게시판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데서 문장이 길어지는 점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사이트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의 통신 언어 사용 정도가 차이를 보인 점은 각 게시판의 목적, 주 이용자 특성, 게시글의 주제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신 언어의 사용률이 낮은 세 사이트는 다른 것에 비해 이용자의 나이가 많고, 게시되는 글의 내용도 정치, 경제, 사회 등과 관련된 무거운 것이 많으며, 게시판을 만든 목적도 국가 정책이나 다양한 사회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교류에 있다. 이와 달리 통신 언어 사용이 많은 ‘상명대, 오로바둑, 이게임즈’ 사이트는 주 이용자가 젊은층이 많으며, 글의 주제는 생활 및 오락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게시판을 개설한 목적도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의견 수렴이나 이용자들 사이의 간단한 정보 교환에 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같은 인터넷 통신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사이트에 따라 통신 언어 사용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인터넷 대화방과 게시판의 언어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장종결법의 특성을 파악한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통신 언어가 일상어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통신 언어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통신 화자들의 특성과 통신 언어 영역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밝혀진 통신 언어의 특성이 일상어에는 어느 정도 파급되고

있는지와 통신 언어 안에서도 좀 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어떻게 변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앞으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 언어가 한국어의 새로운 사회 방언의 하나인 만큼 종결어미에서 보이는 청자 경어법 사용의 구체적인 면이 일상어 사용의 그것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정밀하게 분석하면 통신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2000).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집.
- 권연진 (1998). “컴퓨터 통신어의 언어학적 연구,” 언어과학 5(2), 257-271.
- 권연진 (2000). “컴퓨터 통신 언어의 유형별 실태 및 바람직한 방안,” 언어과학 7(2), 5-27.
- 박동근 (2001). “통신언어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기능 연구,” 어문학 연구 11, 1-16, 상명대 어문학연구소.
- 성명희 (2001). “PC통신어의 문장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오은영 (2000). “PC 통신 어휘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 이동우 (1998). “채팅언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상지대 석사학위논문.
- 이동현 (2000). “가상공간의 언어사용 실태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 (2000). “컴퓨터 대화방 언어 고찰,”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이의도 외 (2000). 우리 말글과 문학의 새로운 지평, 역락.
- 이익섭·채완 (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정복 (1997).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및 약어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외래어 사용 실태와 국민 언어 순화 방안, 63-93.
- 이정복 (2000). “통신 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 8(2), 193-221.
- 이정복 (2001가). “10대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 사용과 문제점,” 한글사랑 15, 68-106, 한글사.
- 이정복 (2001나).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특성,” 우리말글 22, 123-151.
- 이정복 (2002가). “전자편지 언어에 나타난 우리말 변용 현상,” 사회언어학 10(1), 225-251.
- 이정복 (2002나). “전자편지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 텍스트언어학 12, 93-118.
- 이정복·김봉국·이은경·하귀녀 (2000). 바람직한 통신언어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 이진성 (2001). “한국대학생들의 맞춤법 오용 실태—통신어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9(2), 119-141.
- 임규홍 (2000). “컴퓨터 통신 언어에 대하여,” 배달말 27, 23-59.
- 전은진 (2001). “컴퓨터 통신 대화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이정복

leejb@daegu.ac.kr